

공예품만 전시할 곳 찾으세요?

정건용 광주대 교수 담양 신림마을에 공예 전문 미술관 '보임첸' 개관



30일까지 열리는 '광주·전남 목조형 협회 초대전'.

광주 공예산업 발전 위해
이런 공간 하나쯤 있어야

독어로 '작은 나무'라는 뜻
전시·체형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친근히 교류하며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갈 것

지난 5일 담양 대전면 응용리 신림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가 보였다. 당산나무의 짙은 녹색 아래서는 마을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나무 건너편으로 독특한 외관의 갈색 건물에 눈이 띄었다. 언뜻 보아 나무의 그루터기 같은 모양이었다. 지난 4월 17일 문을 연 공예 전문 미술관 보임첸(Baumchen)이었다.

골목을 따라 잠시 걷다 미술관으로 들어서자 한 남성이 책이 큰 모자를 눌러쓰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이곳 주인장인 광주대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정건용(45) 교수였다.

목공예를 전공한 정 교수는 목질공예 작가인 아내 김현정(44) 관장과 함께 지난 9월부터 공예 전문 미술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 교수가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근무할 때부터 살았던 집의 넓은 땅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때부터 부부 내외가 직접 터를 파는 작업부터 시작해 설계도를 그리고,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미술관을 만들었다.

미술관 이름 보임첸은 독일어로 '작은 나무'라는 뜻으로, 지역민과 공예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교류하면서 '큰 나무'로 성장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 교수는 "그동안 공예 작가들이 지역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힘들고, 시민들도 공예 작품을 만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예 작품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싶어서 공예 전문 미술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만 하더라도 공예 인구가 많고, 광주시도 수년 전부터 공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왔다고 해왔는데 그동안

이런 공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도 굉장히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부부는 미술관 옆으로는 작은 감나무를 중심으로 나무데크를 만들었고, 그 주변에는 작은 꽃과 나무를 심었다. 미술관과 잔디 정원을 사이에 두고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작은 카페도 만들었다.

2층 규모의 미술관으로 들어서자 아담한 전시실에 목공예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지난달 17일부터 열고 있는 보임첸의 개관기념 전시인 '광주·전남 목조형 협회 초대전' 참여 작가들의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곽우섭, 박상노, 이봉규, 조광득, 김명국, 유대환, 정종구, 유성남, 최상원, 이정옥씨 등 지역 목공예 작가 19명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나무로 만든 큰 탁자부터 흔들의자, 소반 등의 작품이 1층에 전시돼 있었고, 나무



공예전문 미술관 보임첸은 독특한 외관에 잔디 정원과 나무데크가 잘 조화된 모습이 인상적이다.

로 한껏 멋을 부린 커피 그라인더, 경대, 인테리어 소품 등이 2층에 함께 놓여 있었다.

정 교수는 "몇 해전 이탈리아 스페인광장 인근에서 우연히 공예품만을 전시하는 작은 갤러리에 들렀던 적이 있다"며 "아기자기하면서도 예쁘게 꾸며 놓은 그 갤러리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고, 그때부터

꼭 공예 미술관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보임첸에서는 앞으로 공예 작품들만 전시된다. 첫 전시로 열고 있는 목공예 전시가 끝나면 금속공예, 도자공예, 종이공예 순으로 전시를 열 계획이다.

정 교수는 "공예는 꼭 눈으로만 보는 작

품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383-647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국악	▲은상	◇가야금산조 단체 초등부
◇심사위원 김동현(광주교육대 교수) 서 담(전남도립대 교수)	김태나 외 7명(광주송원초)	▲은상 박태양 외 7명(살레시오초)
◇기악·타악 단체 초등부	◇가야금병창 단체 초등중	◇가야금산조 초등 5.6학년
▲최고상 황민서 외 45명(여도초)	▲은상 연합	▲은상 장명인(나주초6)
▲은상 박해민 외 5명(노화중앙초)	이가은 외 8명(진월)	◇가야금산조 중등부
윤지환 외 13명(두원초)	◇가야금병창 초등 1.2학년	▲은상 정서원(목포항도여자중3)
◇해금 초등부 5.6학년	▲동상 김민재(신암초2)	◇타악단체 초등부
▲금상 오윤경(살레시오초6)	◇가야금병창 초등 3.4학년	▲금상 조민솔 외 8명(광주송원초)
◇설장구 초등부 5.6학년	▲금상 김규리(광주송원초4)	김승민 외 20명(두원초)
▲최고상 박해민(노화중앙초6)	▲은상 김효원(광주송원초3)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 확인바랍니다.
▲금상 김예진(노화중앙초6)		
▲은상 김가은(노화중앙초6)		
이원희(노화중앙초6)		
▲동상 윤자민(노화초5)		
황금물결(노화중앙초5)		
◇가야금병창 단체 초등부		
▲금상 김서운 외 2명(살레시오초)		



송원초 선반 사물판국. /김진수 기자 jeans@

바순, 봄을 꽃피우다

김소리 독주회... 12일 금호아트홀

바순은 목관악기중 가장 낮은 음을 담당하는 중후한 악기다. 깊은 울림을 주는 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다. 바순은 '오케스트라의 광대'와 '오케스트라 신사'라는 별명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한다. 유머스러움과 진중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바순 독주회가 열린다.

'바순, 봄을 꽃피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 서는 이는 바순 연주자 김소리씨다.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광주 출신으로 전주예고를 졸업한 김 씨는 원광대 음악학과 수석 입학 후 1학기를 마치고 곧 국립음대로 떠나 학업을 마쳤다. 유학 중 오사카국제음악콩쿠르 파이널에 올랐으며 베버심포니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귀국후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바순 수석을 맡고 있다.

공연 레퍼토리는 보짜의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레시타티브, 시실리안과 론도, 야코비의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폴로네즈', 에드워드 엘가의 '바순과 현을 위한 로망스' 다.

테너 추현우(빈 오페라단 패션 아티스트 솔리스트), 기타리스트 서만제(한국교원대 객원교수),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현악 5중주(한인지·이미선·서선화·강세련·류수경) 등과 함께하는 무대도 마련된다. 연주곡목은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중 나이트클럽 1960년'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서현일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3625-51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경계 부수고 예술꽃 피우다

이인호전 13일까지 무등갤러리

서양화가 이인호씨의 개인전이 오는 13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평면 위의 조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천연 펄프와 아크릴로 빛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최근 이씨는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허물고, 조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물감으로 작업한 바탕에 물에 불린 종이를 풀로 버무려 작품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물감을 칠하는 작업은 노동의 연속처럼 보인다. 특히 물에 불린 종이 마르면서 형태가 변하는 것도 이씨가 예측해야할 변수 중 하나이다.

'안개꽃'을 소재로 한 '나의 기쁨'(My pleasure) 연작은 작가의 수고스러움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이씨는 화면 밑색을 다지고 다시 긁어낸 뒤에,

그 위에 종이로 안개꽃의 작은 꽃송이와 줄기들을 수놓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개꽃은 실제보다 더욱 풍성한 느낌을 선사한다. 단순한 구성이면서도 다양한 조형적 요소들이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종이로 꽃을 피운 작품 '레퀴엠'(Requiem)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넋들을 위로하는 작품이다. 미처 꽃피우지 못한 희생자들을 다양한 꽃으로 화면에 품었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남부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이씨의 3번째 개인전이다. 현재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아트그룹 '환희', 한국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My pleasure'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 동, 신, 대, 교, 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 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